인간관계 잃고 가정 파탄까지…일상이 송두리째 마비

Stop & Clean
불법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

경찰이 말하는 불법스포츠도박의 폐해

경제 범죄·이혼·아동학대 등으로 번져
중학생들 용돈 1만원씩 모아 베팅하기도
"갈수록 지능화…끝까지 범죄자 소탕할 것"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3계 2팀 박준(42) 반장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단속해온 베테랑 형사다. 지난해 8월 쇼핑몰 사이트로 위장한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이를 운영한 한·중 연계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박 반장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하는 범죄다"면서 "한 번 빠져들면 일상의 모든 것이 마비될 만큼 그 폐해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3계 2팀 박준 반장(가운데)과 팀원들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포즈를 취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불법 스포츠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용자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참여한 일부 사람들은 '내 돈으로 내가 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기까지 한다.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제외하고는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용자는 5년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사이트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단속현장에서 느낀 심각성은 어떤 수준인가.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못한다. 도박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없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된다. 직업까지 잃기 쉽다. 심지어 제3의 금융기관에 의존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결혼한 경우 부부갈등은 물론 별거와 이혼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심지어 아동학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도 자제력을 상실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멀어져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들의 상황도 심각하다는데.

"제 딸이 중학생인데, 일부 아이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 가슴이 미어졌다. 학생들이 같은 반 아이들에게 1만원씩 달라고 한 다음에 배팅을 한다더라. 그로 인해 얻은 돈을 1만3000원씩 나눠준다면서 20~30만원을 번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어른들도 자제력이 없는데 청소년들은 오죽하겠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쉽게 유혹에 빠진다.

"베팅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며 쉽게 단념하지 못한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끼'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참여자가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다. 처음부터 관심도 갖지 말고, 아예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돈을 잃는다 해도 절대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단속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인터넷 사이트 주소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등만 가지고 단속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운영자를 특정하기까지 2~3개월이나 걸린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설자들은 여러 개의 '대포계좌'를 사용한다. 이를 모두 파악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 큰 문제는 도박에 빠져 있거나 빠졌던 이들이 결코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 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지능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안타깝다. 그래도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범죄자를 단속해갈 것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마당발 스타'가 유혹에 쉽게 빠진다

김용만·이수근 등 대표적 케이스
90%, 지인 소개로 불법도박 빠져

김용만, 이수근, 가수 탁재훈, 붐, 토니안, 앤디….

2013년 불법 스포츠도박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예인들이다. 이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거액의 불법 스포츠도박을 해 대중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들은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섭렵하며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오랜 연예계 생활로 이른바 '마당발'로 불리는 이들이기도 하다. 이들은 왜 불법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을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지인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을 받았다. 이수근은 사건 이후 지난해까지 자숙의 시간을 가진 뒤 스포츠동아 인터뷰를 통해 "비슷한 일을 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다보니 유혹에도 쉽게 빠지게 된다. 주위의 시선을 받지 않고, '우리들'끼리 몰래 스트레스를 푼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알음알음 불법의 은밀한 유혹이 연예계 네트워크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마당발 스타'들에게 더욱 쏠릴 위험이 큰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3계 박준 반장은 실제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가담한 사람 중 90%가 지인의 소개로 유혹에 빠져든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운동경기를 좋아하는 연예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재미삼아 시작하지만 결국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심심찮다"면서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PSA 한국프로스포츠협회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스포츠동아 동아일보사 dongA.com CHANNEL A
후원 : KBO 한국야구위원회 KFA 대한축구협회 K LEAGUE 한국프로축구연맹 KOVO 한국배구연맹 KBL 한국농구연맹 WKBL 한국여자농구연맹 KPGA 한국프로골프협회 L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류한수 그레코로만형 66kg 1위…리우행 확정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정지현 2-1 제압
75kg 김현우·59kg 이정백도 최종선발

'악바리들'의 피 튀기는 대결에서 리우행 티켓을 거머쥔 선수는 류한수(28·삼성생명)였다.

류한수는 8일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2016리우올림픽 남자레슬링 국가대표 그레코로만형 66kg 최종선발전에서 2004아테네올림픽 60kg 금메달리스트 정지현(울산남구청)을 2-1로 누르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류한수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선발전에서 1위를 해 2차선발전을 이기면 자동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차선발전 첫 경기에서 김지훈(상무)에게 2-4로 발목이 잡혀 최종선발전을 다시 치르게 됐다.

류한수는 2차선발전에서 올라온 정지현과 맞붙었다. 2012런던올림픽 파트너였던 둘의 최종전에선 초반부터 류한수의 이마와 정지현의 턱에 출혈이 발생해 수차례나 경기가 중단됐다. 선취점은 류한수가 따냈다. 정지현의 주의 누적으로 1점을 얻어 1회전을 1-0으로 마친 류한수는 2회전 역시 같은 방법으로 1점을 추가했다. 이후 정지현에게 경기종료까지 1점만 허용하고 2-1로 힘겹게 이겼다. 정지현은 경기종료 1분22초를 남기고 시도한 파테르 공격이 무위에 그쳐 무릎을 꿇었다.

삼성생명 류한수가 남자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6kg 최종선발전에서 난적 정지현(울산남구청)을 물리치고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스포츠동아 DB

그레코로만형 대표팀의 남은 올림픽 출전권 2장은 김현우(28·삼성생명)와 이정백(30·삼성생명)에게 돌아갔다. 김현우는 75kg 2차선발전 3경기를 내리 폴승으로 끝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1경기 박상혁(조폐공사)을 상대로 2-0 폴승을 따낸 뒤 준결승에서도 윤종규(창원시청)를 8-0 테크니컬 폴승으로 눌렀다. 김진혁(조폐공사)과 결승에선 1회전 2분20초 만에 4-0 폴승을 거뒀다. 안목 굴리기에 이어 상대 양 어깨를 땅에 닿게 만들고 두 손을 불끈 쥐었다.

이정백은 59kg 결승에서 1차선발전 우승자 김승학(성신양회)을 눌러 최종선발전에서 다시 치른 경기 끝에 10-5 승리를 거뒀다. 1회전을 3-0으로 앞서다 경기종료 1분을 남기고 3-4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후 파테르 공격에서 뒤집기로 리드를 되찾고 승리를 지켰다. 김승학은 1차선발전 우승과 올림픽 쿼터 확보에도 2차선발전과 최종선발전에서 내리 지며 대표팀 입성에 실패했다.

류한수와 김현우, 이정백이 탑승한 남자레슬링 그레코로만형 대표팀은 11일 폴란드 오픈에 이어 29일 독일 그랑프리에서 실전감각을 끌어올린다. 다음달 30일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적응훈련을 마치고 8월8일 리우에 입성한다.

양구 |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여자배구대표팀, 리우올림픽 첫판부터 한일전

러시아·브라질·아르헨티나 등과 A조
이정철 감독 "일본 잡아야 쉽게 풀려"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이 2016리우올림픽 본선 첫판부터 숙적 일본과 맞붙는다.

국제배구연맹(FIVB)은 8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6리우올림픽 여자배구 본선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A조에 속한 한국의 첫 경기는 8월 6일 오후 9시30분 마라카나징요아레나에서 열리는 일본과 대회 개막전이다. FIVB는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결정전에서 만났던 두 팀이 개막전부터 맞붙는다"고 전했다.

한국은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아르헨티나·브라질·카메룬과 A조에 속했다. 미국·중국·세르비아·이탈리아·네덜란드·푸에르토리코는 B조에 편성됐다. 각 조 4위까지 8강행 티켓이 주어지고, 8강전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한국 이정철 감독은 "브라질과 러시아가 강팀이지만, 일본·아르헨티나·카메룬은 승리를 따낼 수 있는 상대다. 조별예선 성적이 좋아야 8강 토너먼트 대진이 유리해지는 만큼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잡아야 남은 일정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기에, 첫판이 무척 중요하다.

2016리우올림픽 본선 A조에 속한 한국은 8월6일 일본과 대회 개막전에서 격돌한다. 지난달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최종예선 3차전으로 열린 한일전. 당시 한국은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했다. 사진제공 | 국제배구연맹

한국은 일본과 상대전적에서 49승 86패로 열세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도쿄에서 열린 2016리우올림픽 여자배구 세계예선에서 일본을 세트스코어 3-1(28-26 25-17 17-25 25-19)로 꺾으며 자신감을 찾았다. 강력한 서브로 일본의 리시브 라인을 흔든 것이 주효했다. 본선 무대에서 일본의 조직적인 배구를 깨트릴 해법을 찾았다는 점도 의미가 컸다. 한국은 9일 러시아, 11일 아르헨티나(이상 오전 8시30분), 13일 브라질(오전 10시35분), 14일 카메룬(오후 11시35분)과 차례로 만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윤봉우-우상조 1대1 트레이드

프로배구 베테랑 센터 윤봉우(34·현대캐피탈)와 신예 센터 우상조(24·한국전력)가 유니폼을 바꿔 입는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8일 윤봉우와 우상조의 1대1 트레이드를 시행했다. 윤봉우는 당초 현대캐피탈로부터 코치직 제안을 받았으나 선수생활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결국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게 됐다. 우상조는 2014년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한국전력에 입단했다.